

우육일일시장뉴스 (2026.10.14)

(주)로드프리미엄 | 대상: 중국 / 일본 / 미국 / 호주 / 뉴질랜드 / 남미(브라질·우루과이·파라과이·아르헨티나)

오늘의 핵심

- 1. 미국 Choice 컷아웃은 10/13 US\$375.15/cwt(-0.41), Select는 353.67달러(-0.46)로 370달러대 중반 포함권입니다. 지난주 종합 컷아웃은 375.85달러로 4.16달러 내렸습니다.
- 2. 호주의 9월 소고기 수출은 132,146톤(-5%)이었습니다. 미국향(+4%)·일본향(+19%)은 늘고, 세이프가드 관세 24%가 붙은 한국향은 17,927톤(-16%), 중국향은 7,778톤(-62%)으로 줄었습니다.
- 3. 브라질의 10월 첫 7영업일 소고기 수출은 하루 평균 8,760톤으로 전년보다 39.9% 줄었지만, 톤당 단가는 US\$6,163으로 11.3% 올랐습니다. 중국의 55% 추가관세가 본격 반영되고 있습니다.
- 4. 중국 소고기 도매가는 10/13 73.52위안/kg으로 하루 만에 2.0% 반등했습니다.
- 5. 미국의 한시적 ‘저가 소고기’ 저율관세할당(TRQ)은 첫 달 10만 톤 중 37,486톤(9/28까지)만 채워져, 남미산 추가 공급 효과가 제한적입니다.

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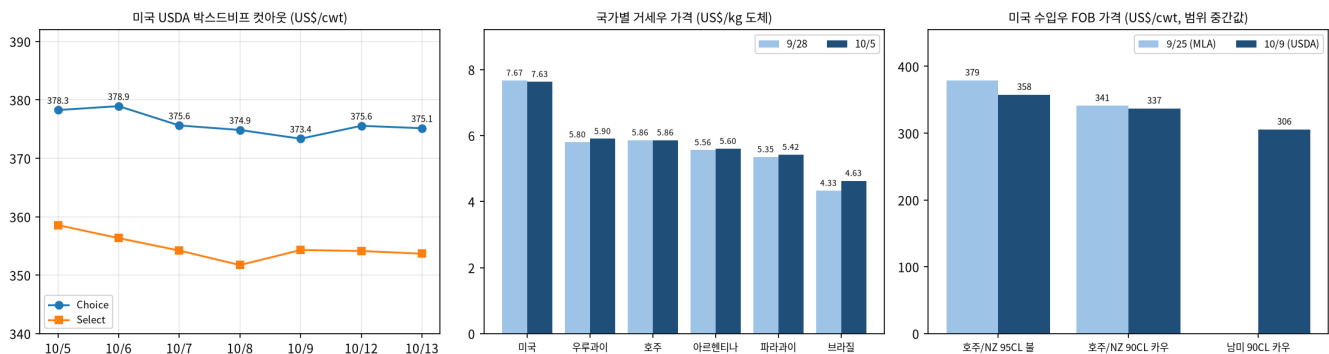
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, 아래는 미국 수입우 FOB/CIF, USDA 컷아웃, 산지 경매가, 수출 단가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.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미국	USDA Choice 600-900 컷아웃 (10/13)	US\$375.15/cwt	전일 -0.41	USDA AMS
미국	USDA Select 600-900 컷아웃 (10/13)	US\$353.67/cwt	전일 -0.46	USDA AMS
미국	Choice 등심(Rib) 프라이멀 (10/13)	US\$670.42/cwt	-	USDA AMS
미국	CME 12월물 생우 (10/13 종가)	US\$226.375/cwt	-0.225	Barchart
미국	생우 현물 (지난주, 북부)	US\$222~223/cwt 생체, 345 도체	-	FS Grain
미국	CME 비육우 지수 (10/9)	US\$338.62/cwt	+1.55	FS Grain
중국	소고기 도매 평균 (10/13)	73.52 CNY/kg	전일 +2.0%	NetEase(농업농촌부)
호주/NZ	미국 수입 90CL 카우 FOB (10/9)	US\$335~339/cwt	9/25 MLA FOB 340~342 대비 약 -4	USDA AMS 수입우 거래
호주/NZ	미국 수입 95CL 볼 FOB (10/9)	US\$355~360/cwt	9/25 MLA FOB 377~381 대비 약 -21	USDA AMS 수입우 거래
호주	미국 수입 90CL 카우 CIF (9/25, MLA 최신 공개분)	US\$320~325/cwt	전주 +5, 전년 -13	MLA 주간 리포트
남미	미국 수입 90CL 카우 (10/9)	US\$303~308/cwt	-	USDA AMS 수입우 거래
호주	9월 소고기 수출 (전체 / 한국향)	132,146톤 / 17,927톤	전년 -5% / -16%	Farmonline
호주	거네다 재입식용 경량 거세우 (10/13)	평균 648 A¢/kg 생체	+100¢	Beef Central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호주	재입식 거세우 지표 (10/9 주간)	519 A¢/kg 생체	+2.5%	MLA 주간 사항
뉴질랜드	P2 스티어 스케줄 북섬 (10/12)	985 NZ¢/kg	4주 전 동일, 1년 전 890	interest.co.nz
뉴질랜드	P2 스티어 스케줄 남섬 (10/12)	971 NZ¢/kg	4주 전 965, 1년 전 883	interest.co.nz
브라질	Cepea 비육우 (10/9)	R\$377.80/아로바	10월 누적 +3.71%, 사상 최고	Brasil 61(Cepea)
브라질	10월 1~7영업일 소고기 수출 단가	US\$6,163/톤	전년 10월 대비 +11.3%	Notícias Agrícolas(Secex)
브라질	거세우 평균 (10/5)	US\$4.63/kg	+6.9%	World Beef Report
우루과이	수출용 특급 거세우 (10/11)	US\$5.90/kg	상승 전환, 일부 6.00	El País Rurales
아르헨티나	거세우 (10/5)	US\$5.60/kg	+0.7%	World Beef Report
파라과이	거세우 (10/5)	US\$5.42/kg	+1.3%	World Beef Report
미국→한국	8월 대한민국 수출 단가 (US\$2.01억 / 19,195톤)	약 US\$10.47/kg	물량 +14%, 금액 +20%	Provisioner(USMEF)

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

우육 국가별 가격 변화



자료: USDA AMS, World Beef Report, MLA, USDA AMS 수입우 거래 (수입우는 FOB 범위 중간값, 남미는 9/25 비교값 없음, 국가별 거세우는 10/5가 최신)

국가별 주요 뉴스

중국

- 10/13 소고기 도매 평균은 73.52위안/kg으로 전일보다 2.0% 올랐고, 양고기도 67.32위안(+1.3%)으로 올랐습니다. 전날까지는 전주 대비 1.7% 약세였습니다. (NetEase(농업농촌부))
- 브라질산은 9/29 연간 쿼터 110만 톤을 채워 10/1부터 55% 추가관세(일반관세 포함 67%)가 붙습니다. 1~8월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은 약 87.3만 톤으로 8% 줄었습니다. (Datamar News)
- 호주산도 6월부터 쿼터 초과분에 55% 관세가 적용돼 9월 대중국 수출이 7,778톤(-62%)에 그쳤습니다. (Farmonline)
- USDA FAS는 2027년 중국 소고기 수입을 365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. (USDA FAS)

일본

1. 호주산 9월 대일본 수출은 27,107톤으로 19% 늘었고, 올해 누적 점유율은 16.8%입니다. ([Farmonline](#))
2. 미국산 8월 대일본 수출은 금액 1.4억 달러(+2%), 물량 -13%였습니다. ([Oklahoma Farm Report](#))
3. 아르헨티나산 소고기의 일본 수출 위생요건이 합의돼, 남미산 경쟁이 커질 전망입니다. ([Buenos Aires Times](#))
4. FAS는 2027년 일본 소고기 수입을 70.5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. ([USDA FAS](#))

미국

1. 10/13 Choice 커틀아웃은 375.15달러(-0.41)로 보합권입니다. Choice는 374~379달러 범위에 머물러 있고, 등심(Rib) 프라이멀은 670달러대로 연말 수요 기대가 반영돼 있습니다. ([USDA AMS](#), [Morning Ag Clips](#))
2. 지난주 종합 커틀아웃은 375.85달러로 1주 전보다 4.16달러 내렸고, 패커 마진은 여전히 플러스입니다. ([Meatingplace](#))
3. 한시적 '저가 소고기' TRQ(90일간 30만 톤)는 첫 달 10만 톤 중 37,486톤만 들어와, 실제 추가 수입은 8,054~21,936톤으로 추정됩니다. 해당 쿼터의 주요 공급국은 브라질·파라과이입니다. ([Farm Policy News](#))
4. 롤린스 농무장관은 수입 확대가 소비자 가격 부담을 덜고 있다고 밝혔지만,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(10/13). ([Brownfield](#))
5. 10/9 USDA 수입우 거래에서 호주·뉴질랜드산 90CL 카우는 335~339달러, 95CL 불은 355~360달러로 9월 말보다 크게 내렸습니다. ([USDA AMS 수입우 거래](#))
6. 12월물 생우는 10/13 226.375달러(-0.225)로 소폭 내렸습니다. ([Barchart](#))

호주

1. 9월 소고기 수출은 132,146톤으로 전년보다 5% 줄었지만 5년 평균보다 32% 많습니다. 미국향 43,463톤(+4%)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, 한국향은 6월 정점(32,599톤)보다 약 45% 적은 17,927톤입니다. ([Farmonline](#))
2. 중국의 쿼터 초과 관세를 피하려고 물량을 1월 통관용으로 쌓아 두면서 브리즈번 등 냉동창고가 가득 찼고, 최소 2~3곳의 수출 도축장이 생산일을 잃었습니다. ([Beef Central](#))
3. 10/13 거네다 시장은 재입식용 경량 거세우가 평균 648¢(+100¢)로 강세였고, 암소도 5~10¢ 올랐습니다. ([Beef Central](#))
4. FAS는 2027년 호주 소고기 생산을 242만 톤, 수출을 224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. ([USDA FAS](#))

뉴질랜드

1. P2 스티어 스케줄은 북섬 985, 남섬 971 NZ¢/kg로 1년 전보다 각각 11%, 10% 높습니다. ([interest.co.nz](#))
2. 미국 수입 시장의 가공용 원료(90CL) 가격 하락은 뉴질랜드산 소고기 수출가에도 부담입니다. ([USDA AMS 수입우 거래](#))

남미 (브라질·우루과이·파라과이·아르헨티나)

1. 브라질의 10월 첫 7영업일 소고기 수출은 61,320톤, 하루 평균 8,760톤(-39.9%)이었고, 톤당 단가는 US\$6,163(+11.3%)입니다. 닭고기(+28.1%)와 돼지고기(+20.5%)는 늘었습니다. ([Notícias Agrícolas\(Secex\)](#))
2. 브라질 비육우는 Cepea 기준 R\$377.80/아로바로 사상 최고이며, 선물은 R\$400에 다가서고 있습니다. ([Brasil 61, V eja](#))
3. 1~8월 브라질의 미국향(24.1만 톤, +37%)·칠레향(10.6만 톤, +32.5%)·러시아향(8.3만 톤, +38%) 증가가 중국향 감소를 메웠습니다. ([Datamar News](#))
4. 우루과이 거세우는 하락 압력이 끝나고 US\$5.90/kg으로 다시 올랐고, 일부 고품질 물량은 6.00달러에 거래됐습니다. 도축장 수요도 살아나고 있습니다. ([El País Rurales](#), [El Observador](#))
5. 파라과이는 도축이 약 20% 줄었지만 수출 가격이 20% 올라 이를 메우고 있습니다. ([La Tribuna](#))
6. 아르헨티나 소매 소고기 가격은 9월 0.5% 올라 6개월째 정체였으나,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약 10%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([La Nación](#))

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

- 미국 수입 시장의 가공육 원료(90CL·95CL)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, 호주·뉴질랜드산 가공육 원료의 한국향 오퍼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.
- 호주산 한국향 수출은 세이프가드 관세 24%로 6월 정점보다 45% 줄었습니다. 중국향 물량도 1월 통관을 기다리며 쌓여 있어, 1월 선적·통관분은 공급이 몰려 가격 협상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.
- 미국산 Choice 컷아웃은 370달러대 중반 보합이고 미국 생산은 줄고 있어, 구이용 부위는 큰 폭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 4분기 말까지 나눠 매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브라질산은 중국 관세로 수출 물량이 40% 가까이 줄었지만 단가는 올랐고, 산지기도 사상 최고입니다. 남미산 오퍼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우루과이·파라과이산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.

한 줄 요약

미국 컷아웃은 보합, 수입 가공육 원료는 약세이며, 호주산은 중국·한국 관세로 1월 통관분이 몰릴 수 있어 한국 수입업체는 1월 선적분 위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